



허식 의원 복당에 지나친 '좌파 단체 눈치' 논란

5·18 폼페이 좌파적 시각에 찢 보수 경악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주장하면 인천은 왜들 난리인지 인천 정치 판 생리부터 고치라고 지적되고 있는데 우파 시민단체는 없는가, 그냥 정치적 성향에 따라 시민활동을 하고 있을 뿐인데 마치 인천 시민들의 전체 여론처럼 받아쓰는 언론이 더 큰 문제로 파문을 더 확산시키고 있다.

한편, 5·18 폼페이했다고 허식 의원(전반기 9대 의장)을 좌파 단체가 공동으로 고발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일단락됐다. 범죄사실이 없어 국민의힘 인천시당도 보수 시의원을 복당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어 절차에 따라 복당됐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고발이 좌절되자 이번에는 복당 문제로 허식 의원과 함께 국민의힘 손범규 인천시당 위원장까지 제소 추진한다고 알려졌는데 좌파 단체가 제소를 추진하면 보수정당이 수궁해야 하는지 웃지 못할 일이 연출되고 있다. 그만큼 휘둘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천시당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허식 의원을 공정하게 복당을 시켰다고 한다. 실제 좌파 주장에 보수의 행동은 지리멸렬했지만 뒤늦게나마 복당 결정은 잘한 결정이었다. 허식 의원은 5·18 폼페이 사실이 없다고 쪽 주장해 왔던 것은 사실이다.

스카이데일리 신문을 주었다는 것은 의정활동에 있어 참고하라는 뜻이 담겨 있었다고 말한다. 폼페이나 도의적으로 어떤 잘못도 한 일이 없으며 한동훈 대표(당시 비상대책 위원장)의 말 한마디는 광주에서 기자들 질문에 말을 아끼지 않고 휘둘러 파문을 불렀다.

이에 좌파들은 허식 의장을 재물 삼아 5·18 폼페이 인물로 부상시키며 범죄 느낌이 들도록 몰아갔다는 시각은 우파 단체의 반발을 불러왔다. 수사기관 판단은 죄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좌파는 아직도 몰고 늘어지는 모습이다.

정치적 사망을 당하도록 실제 만들어 놓았다. 국힘 시의원들 또한 자당 의원을 지킬 생각은 하지 않고 의장 탄핵에 물러나야 했다. 여론에 떠밀린 비운의 정치인 허식 의원은 자당 국힘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탈당의 길을 선택해야 했다.

총선을 앞두고 꼼수라고 했다. 여론도 좌파 단체의 주장을 받았다. 마녀사냥이 감행됐는데 허식



올해 초 시민과 범시민사회단체들이 허식 의장을 보호하고 국민의힘 각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읽고 있다.

의원 탈당 아픔은 매도가 됐다. 보수단체 당원들의 일성은 강력한 반발로 대응했다. 역대 전국 총선 대참패는 결과론이다.

정치경력이 짧았던 한동훈 현대표는 싸이처럼 벼락스타의 길을 걸었다. 보수의 협치는 대표 선출과정에서도 정견보다 상대 흠집을 내기가 국힘의 민낯이다. 이런 정치가 국힘의 현실로서 인천 국힘 시의원들까지 허식을 탄핵했던 것은 보수의 실체다.

허식 의원은 정치가 상실된 현장에서 보수의 자존감을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좌파와 더 맞서 싸웠다. 명예가 회복되어 복당으로 돌아왔다. 현 손범규 인천시당 위원장의 결정이 있었다. 일부 시의원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도 전해졌다.

좌파 단체는 허식 의장이 복당되자 손범규 위원장까지 걸었다. 누구를 겨냥한 것이냐는 해석은 한동훈 대표의 반응을 보겠다는 속셈으로 풀이하는 이도 있다. 보수는 태생부터 진보에 비하면 뒷심이 부족한 것은 국민적 중론이다.

인천은 좌파 단체의 주장을 너무 잘 받고 있다. A 언론사부터 인천을 대표한다고 자부하지만 사실과 다르다. 국힘 시당은 이런 보도자료를 냈는지 선의적 행동이라고 하지만 판단의 뉘는 결이 다르다. 허식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겠다는 것에 처음에는 반대했다고 한다.

시당 위원장이 하는 일이라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결과는 더 파장만 불러오는 꼴이 됐다. 잘 따져보면 스스로 정치적 이해가 부족해 좌파에게 빌미만 제공해 높으로 빠졌다는 것이다. 조금 한 생각하면 정치적 이해타산이 어떻게 나올지 몰랐을까?

허 의원은 복당 과정 유감을 표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허식 의원은 5·18과 관련해 국힘시당 차원에서 요식적인 절차에 따라 질문

하는데 예의상 유감을 표명하는 것은 정치라는 것이다. 누가 갑이고 을인가, 이번 보도자료 배포에 허식 의원은 사과를 빼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손범규 위원장은 자신이 아우르는 뜻에서 5·18과 관련해 사과한 것"이라고 말한다. 정정보다 협치를 강조했다. 진실을 그대로 받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5·18은 계곡과 같은 존재로 좌파는 최대치를 넘어 정치적 활용도는 확실히 선점하고 있다.

찢 보수의 주장은 좌파 공격에 떨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맞서라고 한다. 칼끝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잘 분석해야 했다는 것. 좌파의 사사건건 노림수에 또 낚시에 걸렸다는 평가다. 5·18 폼페이는 오히려 가짜 유공자를 밝혀 폐단을 없애는 길이 진실이라고 한다.

스카이데일리 5·18 특별판이 가짜뉴스라면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 한다. 공직이나 기업에서 면접을 보면 가짜 유공자 자녀들이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 가짜 5·18 유공자 일족은 가정 10점을 적용받고 있다. 다른 국민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이를 5·18 역차별이라고 한다.

가짜 유공자 명단은 책자로 나왔다. 국힘은 정치적 리스크보다 청문회를 통해 진실을 밝히라고 한다. 천안함 폭침으로 국군장병 희생은 불신만 조장되고 있다. 희생된 국군장병을 모욕하고 있다고 한다. 좌파 세력이 활개를 치는 것은 우파의 못남 때문이란단다.

한편, 보수단체 한 사무국장은 애국선열들이 피를 흘려 지켜낸 나라인데 안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우파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좌파에게 먹혀 자유민주주의는 사회주의로 변질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허식의 문제를 이런 시각에서 보길 기대하고 있다. /김양훈 위원 /문미순 기자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조성 약속 유정복 시장, 신혼부부들과 대화 자리 마련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지난 7월 9일 발표한 인천형 신혼부부&신생아 주거 정책인 '4집 dream'의 진행 상황 점검에 직접 나선 잔결음에 눈길이 쏠렸다.

인천광역시장은 유정복 시장은 지난 31일 '천원주택' 현장에서 지원 대상자인 신혼부부와 대화의 시간을 갖고, 신한은행을 방문해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정을 위한 주거 및 금융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천원주택은 1일 임대료 '1000원(월 3만원)으로 신혼부부에게 주거지를 제공해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인천시의 파격적인 주거 정책 중 하나다.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인 76만원의 4% 수준으로 주거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자녀 출산 및 양육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천원주택' 현장을 둘러본 유정복 시장은 신혼부부 3쌍과 함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신혼부부들과 주거 환경 및 생활의 편리성, 개선점 등에 대해 직접 의견을 나눴고, 사업 취지와 인천시의 주거 정책 방향도 상세히 설명했다.

신혼부부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유정복 시장은 "인천형 주거 정책은 주거비 부담을 크게 낮춰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라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처럼 인천시민들,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이 더 많은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천시가 지속 가능한 저출생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인천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지역보다 선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실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으로 대안될 수 있도록 인천시가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이후에는 신한은행 인천영업부금 융센터에서 신한은행 관계자들과의 간담회가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는 신생아 내집마련 이자지원,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정의 주거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대책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인천시는 이번 천원주택 현장 방문과 신한은행 간담회를 통해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주거 및 금융 지원 정책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시는 시민들의 주거 복지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해 인천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생아 가정을 위한 주거 지원은 인천시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며 신한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문미순 기자

동구, 인천시와 '송림고가교' 철거 추진

인천 동구는 인천시와 송림고가교 철거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동구는 지난 2월부터 송림고가교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및 주민들이 겪는 교통 불편 등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인천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송림고가교는 기형적 교차구조로 일부 방향에서 직진 또는 좌회전이 불가능한 교차로로 교통 불편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현재 송림고가교 주변은 송림3지구 재개발사업 등 5개 구역이 정비사업 추진 중이다. 2027년까지 약 5300세대(약 1만3000명)의 입주가 예정되어 차량통행량 증가에 따른 교통혼잡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구는 도시 단절 완화와 도시미관 개선 트렌드에 발맞추고,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지난 2월부터 송림고가교에서 전문가 자문 및 현장 확인 등을 추진한다. 이와관련, 그 개선안을 인천시에 검토 요청하여 협의를 진행하는 등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최근 인천시에서 개최한 착수보고회에서 송림고가교 철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검토를 건의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천시의 도로건설·관리계획에 송림고가교 철거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를 추진하여, 주민의 쾌적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고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미순 기자